

# 회원사 소식

## 금호타이어

### 국내 업계 최초 해외 신차 장착용 타이어 독일 벤츠차에 공급

해외 신차 장착용(OE:Original Equipment) 타이어 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국내 타이어업계 처음으로 독일 벤츠사에 OE용 타이어를 이번달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OE용 타이어는 신차용 내지는 장착용 타이어로 불리며 카메라에 납품되어 자동차 출고 시 장착되어 나오는 타이어를 말한다.

이번에 금호타이어가 벤츠에 공급하는 제품은 185/65R15 규격의 'SOLUS KH15' 로 벤츠 A-Class차종에 공급되며, 본 제품이 장착된 차량은 유럽 전 지역에 수출된다. 특히 이번 납품은 세계적 명차생산업체로부터 금호타이어의 품질과 기술력을 재확인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벤츠는 부품에 대한 품질 규정이 까다로워 현재 미쉐린, 브릿지스톤, 굿이어 등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타이어 업체로부터 OE 납품을 받고 있다. 이번 벤츠사로의 납품으로 금호타이어는 유럽지역에서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 상승이 기대되며 향후 해외 OE공급에서도 상당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노원일 마케팅 본부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SOLUS KH15는 고성능(High performance)타이어로 노면상태에 구애 받지 않고 조종안정성이 뛰어나며, 승차감 및 소음 성능까지 고려한 최적 설계 시스템으로 개발되어, 최근에 출시된 고성능 세단 등에 적합한 제품" 이라

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 시키고 내수 교체 시장(RE)으로의 파급효과 또한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향후10대 카메라커의 해외 OE시장 공급물량을 늘릴 예정이다. 특히, 최근 금호타이어는 시속 360킬로 주행이 가능한 X-Speed 타이어를 콘티넨탈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출시한 바 있어, 세계 유명 스포츠카메이커에 OE공급을 추진 중이다. 지난 02년 폭스바겐에 신차 장착용 타이어를 공급함으로써 해외 OE시장에 첫 진출했던 금호타이어는 크라이슬러나 미쯔비시 등에도 공급을 하고 있으며, 올해를 기점으로 해외 OE시장 집중 공략의 원년으로 삼아 08년부터는 해외 OE시장 600만본 규모의 타이어를 공급할 계획이며, 해외 유명 카메라커를 대상으로 해외 OE 비즈니스 확대할 방침이다.



## 초고속용 타이어 X-Speed 출시

금호타이어는 최근에 초고속 스포츠카에 맞는 초고속 전용 X-speed 제품을 선보였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출시된 초고속 전용 타이어는 미쉐린, 컨티넨탈 등 일부 회사에서 개발, 출시했으며,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이 요구된다. 금호타이어의 X-speed 제품은 36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제품이다. 360km/h 까지 주행이 가능한 제품은 독일 컨티넨탈사에 이어 두 번째다.

X-speed는 초고속 주행 시에도 노면 그립력을 최대로 유지시켜주며 고속주행중 발열 저하, 방열을 최대화한 제품이다. 비대칭 접지면은 고속 코너링시 타이어 내측과 외측의 접지력을 이상적으로 배분시켜 조종안전성을 향상시킨다. 제동 성능 역시 타사 제품과 비교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타사 경쟁 제품보다 적게 나왔다. 그리고 배수 성능 시뮬레이션을 통해 고속주행에서도 탁월한 배수 성능이 구현되도록 함으로써 마른 노면뿐만 아니라 빗길 주행 안전성과 제동능력을 향상시켰다.

주행성을 중시하는 유럽에서는 2009년까지 고속주행용 타이어가 전체 시장의 1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이번에 금호타이어에서 개발한 고속주행용 타이어가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고성능 레이싱 타이어 설계 기술을 초고속 타이어 설계에 적용함으로써 고성능 스포츠 타이어 시장에서도 세계 BIG3 메이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게 됐다” 고 말했다.

## Global ERP 시스템 가동

금호타이어는 지난 2월 5일 프로세스 혁신(PI) 구현 및 효율적 자원관리를 위해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분

격적으로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ERP는 전부문에 걸쳐 있는 경영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재구축함으로써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기존의 인사, 재무, 생산 등 기업의 전 부문에 걸쳐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인사정보 시스템, 재무정보시스템, 생산관리시스템 등을 하나로 통합, 기업내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한 부서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기만 하면 전 부서의 업무에 반영돼 즉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06년 2월부터 1년여의 기간 동안 200억원을 투입하여 전 부문에 걸쳐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업무 처리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ERP솔루션을 도입하여 Global 컨설팅사인 Accenture의 컨설팅을 받아 ERP를 도입하게 되었다. 금호타이어의 오세철 사장은 ERP가동과 관련하여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국제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다졌으며, 이를 통해 탑클래스의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 이라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Global TOP5로 도약하기 위하여 현재 중국 남경, 천진 등을 포함한 베트남 등에 해외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ERP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글로벌 통합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의 안정화 기간을 거쳐 향후 SCM(물류공급망관리)이나 PLM(제품주기관리)과 같은 '확장ERP' 영역까지 시스템을 확대하며 PI/ERP를 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넥센타이어

### 3억불 수출탑 수상

넥센타이어는 지난 06년에 회사 설립 이후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면서 3억불 수출을 달성했다. 95년 1억불탑을 수상한 이후 05년에 2억, 그리고 1년만인 지난해 북미와 유럽지역 등의 폭발적인 수출증가에 힘입어 3억불 수출

의 쾌거를 거둔 것이다. 이에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11월 30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자원부로부터 3억불 수출탑을 수상했으며 12월 1일 서울 사무소에서 조출한 기념 다과회를 열었다.

그동안 넥센타이어는 해외수출 강화를 위해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가에 다양한 형태의 광고전략을 펼치며 글로벌 브랜드로서 인지도를 높여왔다. 그 결과 05년 7월부터 06년 6월까지 넥센타이어 수출실적은 총 3억1,000만 달러를 기록 했으며 이 가운데 북미 지역이 39%를, 유럽지역은 30%를 차지했다. 경영기획본부 양창수 상무는 “해외마케팅을 보다 강화해 해외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더라도 올해에는 수출실적 4억불 돌파가 무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로디안 HP·N7000, GD 마크 획득

06년 최고의 디자인 상품을 가리는 '2006 우수산업디자인 상품'에 넥센타이어의 로디안 AT-II와 N7000이 선정됐다. 산업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기업의 디자인 개발 및 제품 경쟁력을 평가하는 이번 심사에는 총 559개사 1,461점이 출품된 가운데, 335개사 659점이 GD

상품으로 선정되고 33개사 65점이 대통령상을 비롯한 우수디자인상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산업디자인 상품 선정을 통해 로디안 AT-II, N7000, 두 제품은 정부가 공인한 GD 마크와 함께 상호 인증된 ADA(호주디자인상) 마크를 획득했다. 특히 로디안 AT-II는 국내 타이어 제품 중 유일하게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을 수상하며 우수 디자인 제품으로 입증 받았다. 넥센타이어는 지속적인 GD 출품을 통해 체계적인 디자인 관리를 구축하고 넥센만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 전사ERP 솔루션 구축 킷오프

넥센타이어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구축에 돌입하고 지난해 12월 13일 전사 PI/ERP 프로젝트 킷오프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PI/ERP 프로젝트에 대한 경과보고, Task-Force 팀원에 대한 사령장 수여,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가 진행됐으며, 향후 10년을 바라보는 중요한 사업에 전사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홍종만 부회장의 당부의 이야기로 마무리됐다.

전사 PI/ERP 프로젝트는 넥센타이어의 양산 본사, 서울 영업, 중국 생산법인, 미국 판매법인에 대해 06년 12월부터 올 연말까지 약 1년여에 걸쳐 재무회계, 관리회계를 비롯해 영업판매, 물류관리, 생산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프로세스 표준화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대규모 작업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PI(Process Innovation) 기반을 마련하고, 주요 업무별 핵심 성과지표(KPI) 관리와 성과지향형 프로세스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넥센타이어는 전사 PI/ERP 구축을 통해 수직 수평적 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가져옴으로써 제조효율 극대화, 고객 중심의 품질관리, 실시간 경영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전략경영의 기반이 구축되는 동시에 직접적인 수

익성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물류 혁명 일으킬 완제품 자동 창고 착공

넥센타이어는 양산 본사 완제품 물류 자동창고 설립을 위해 지난해 11월 29일 홍종만 부회장 등 임원진과 한화건설 및 남흥기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공무팀 조형건 팀장의 경과 보고에 이어 참가자들의 테이프 커팅과 기념 시삽이 이어졌다. 약 6000평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면적(약3914평), 건물 최고 높이(약39.5m)의 규모로 지어지는 자동 완제품 창고로서 총 460,000개(17,030 Pallets)의 완제품 타이어를 저장할 수 있으며, 선진화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체계적인 물류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근 고속도로 주변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서 당사의 홍보 효과에도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사는 07년도 9월 중순 완료를 목표로 실시된다.

## 한국타이어

### 한국타이어, 업계 최초로 월간 1억불 초과 수출액 달성

한국타이어가 지난 1월 31일자로, 월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동안 완성차 공급용과 교체용 타이어를 합한 수출에서 1억 5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며, 월간 수출 1억불 돌파는 사상 최초이자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의 의미를 가진다. 마케팅 본부 조현식 부사장은 “회사의 최대 수출지역인 유럽지역의 매출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올해 첫 달의 실적이 좋으므로 향후 수출 목표 달성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국타이어는 올해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프리미엄

자동차 메이커 타이어 공급 확대, 경영혁신 활동으로 불안정한 경영환경을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약 12% 증가한 12억 5,500만 달러로 잡고 있다.

세계적인 자동차회사 아우디에 한국타이어 공급 한국타이어가 올해부터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사인 아우디(Audi)에 타이어를 공급기로 하고, 지난 12월 기술계약 협의서를 체결했다. 아우디에 공급할 총 수량은 약 9만개며, 오는 6월부터 중국에서 생산되는 아우디의 고급 중형 세단인 'A6L'과 'A4'에 장착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가 공급하게 될 제품은 고속 주행 성능이 뛰어난 '벤티스 S1 ev0'의 16인치, 17인치 규격이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작년 7월부터 GM이 07년 주력 모델로 내놓은 신차 '새턴 아우라(Saturn Aura XE)'에 UHP 타이어를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시보레 말리부, 코발트, 폰티악 G6, G5 등 GM의 다른 07년형 승용차에도 신규 공급을 시작했다. 이는 한국타이어가 해외 OE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년 만에 프리미엄 자동차 납품에 성공한 것이라서 향후 다른 유명 자동차 회사와의 계약 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타이어는 폭스바겐, GM, 포드, 다이하츠, 미쯔비시, ITEC 등 해외 유명 자동차 회사에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2007년은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의 해”**  
 한국타이어가 지난 1월 19일, 공시를 통해 올해 타이어 사업에서 총 3조 3,194억 원의 글로벌 매출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영업이익은 3,130억원, 경상이익은 2,601억 원, 당기 순이익은 1,925억 원을 목표로 했다. 글로벌 매출은 한국과 중국공장을 비롯해 올해 일부 생산에 들어갈 예정인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한 타이어를 기준으로 했다.

올해 한국타이어 대전, 금산 등에 위치한 한국 사업장에서 매출액 2조 2,748억 원, 영업이익 2,775억 원, 경상이익 3,066억 원을 목표로 세웠다. 이는 지난 06년보다 각각 9.5%, 59.0%, 35.6% 늘어난 수치다. 지난 06년에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2조 766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으며, 영업이익은 24.3% 감소한 1,745억을 기록했다. 경상이익과 순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20.0%, 22.0% 감소한 2,261억, 1,668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타이어는 공시를 통해 “환율 하락 등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도 해외 수출용 제품 가격 인상, 해외 자동차 메이커 OE 공급확대 등으로 매출액이 늘었다. 또, 지난해 지역별로 한두 차례에 걸쳐 해외 수출용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이 있었으나,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예전에 비해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원료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06년 영업이익은 줄어들었다. 지난해 천연고무 평균 매입가격은 톤당 약 1,930달러로 전년 대비 52%가 올랐다. 이 밖에도 카본블랙이 27%, 합성고무가 6% 가량 올랐다. 조현식 마케팅본부 부사장은 “올해도 천연고무를 비롯한 원부자재 수급의 어려움과 가격 불안정이 예상되지만,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중국 아우디 공급을 시작으로 한 프리미엄 자동차 메이커 OE 공급 확대, 경영혁신 활동 등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을 돌파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타이어 조총환 사장, 12일 ‘한국 CEO 그랑프리’ 수상**

한국타이어 조총환 사장이 한국 CEO 연구포럼이 주최하는 ‘한국 CEO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한국 CEO 그랑프리는 경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과학적으로 계량화해 바람직하고 탁월한 경영인에게 수여하는 이른바 CEO 노벨상이다. 조총환 사장은 12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화학업계를 대표해 이 상을 수여했으며, “한때 어수선한 국내 정세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하면서 ‘코리아 프리미엄’이 생기고 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경영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웃과 사회의 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자동차의 발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한국 CEO 연구포럼은 이현재 前 국무총리가 명예이사로 있으며, 한정근 경주대학교 교수, 홍선근 머니투데이 대표가 공동상임위원장으로 있다.

**한국타이어 티스테이션 100호점 오픈**

작년 12월 28일, 인천시 옹현동에 한국타이어의 타이어 유통 프랜차이즈인 티스테이션 100호점이 문을 열었다. 지난 04년 7월에 티스테이션 1호인 안양점을 개설한 이래 약 2년 6개월 만이다. 한국타이어가 운영하는 티스테이션은 동일한 가격과 표준화된 서비스, 차원 높은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고급 매장 컨셉으로 만들어진 체인점으로 타이어, 휠, 배터리 등 자동차 관련 부품 판매와 휠얼라인먼트, 진동조정 밸런스 등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한국타이어는 올해와 내년에도 각각 70여 개의 티스테이션을 열어 08년에는 전국에 약 250개의 티스테이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수입자동차를 포함 중형 럭셔리 세단 고객을 타깃으로 하

고 서울 강남 인근에 고급 타이어 매장을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3월에는 중국 상해에 티스테이션 1호점을 열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중국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확고히 지키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티스테이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흥아가 글로벌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맡은 바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 (주)흥아

### 07년도 흥아그룹 시무식 개최

지난 1월2일 흥아 본사 사무동 강당에서 (주)흥아, P.T HUNG-A INDONESIA, (주)흥아포밍, (주)썬텔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07년도 흥아그룹 시무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시무식은 흥아그룹이 07년 정해년을 힘있게 도약하는 한해로 만들기 위한 결의와 다짐의 자리가 되었으며, 한편 시무식에 앞서 (주)흥아 부회장 및 사장 취임식이 진행되었다.



### 손이태 부회장 및 정성원 사장 취임

07년 1월 2일 흥아의 손이태 대표이사겸 사장이 부회장으로, 정성원 부사장이 대표이사겸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시무식에 앞서 열린 취임식에서 손이태 부회장과 정성원

### 06년도 공정별 개선 지도사원 전사 발표 대회 개최

06년도 공정별 개선 지도사원 전사 발표대회가 11월20일 (월) 흥아 본사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발표한 총10팀 중에 1공장 가황공정이 최우수상을, 1공장 성형과 2공장 정련, 공무팀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흥아는 매년 실시되고 있는 동 발표대회로 지금까지 공정상의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었으며 향후에도 많은 개선 아이디어를 통하여 안전하고 합리적인 공정작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